

하타노 세츠코 지음/최주한 옮김,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푸른역사, 2016. 9.

최종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인물전기학회장, 국제팬클럽회원

저자에게 일본어 원저를 받은 지 1년 남짓 만에 한국어 번역서까지 읽게 되니 반갑고 문학계의 활발한 역동성을 축하하고 싶었다. 그러던 터에 저자가 서울대 규장각에서 ‘해외저자 초청강연’(2016. 12. 11)에서 본서에 대해 발표를 하는 계기로, 아시아연구소에서 서평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반가우면서도 약간 망설였다. 같은 연구의 대열에 선 동학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의식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뜻있는 책에 학자로서 응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수락했다. 그리고 규장각에서 저자가 본서에 쓰고 싶었는데 연구가 미진하여 쓰지 못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발표하는 것도 인상 깊게 들었고, 논평자들의 다양한 논평도 들었다. 이런 논의들을 배경으로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평소 평자의 춘원 연구에 대한 관점으로 서평에 임한다.

I

우선 본서의 의의를 생각하면, 본서는 무엇보다 일본인에게 한국 작가 이광수를 알리기 위한 소개서다. 문학을 전공한 일본학자인 저자가 30여년 전에 『무정』을 읽고 받은 감동으로 계속 춘원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해온 결실이란 점에서 그 꾸준한 학문적 열정에 존경과 애정을 느끼게 한다. 특히 『무정을 읽는다』라는 연구서를 내어 2008년에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본서는 일

본에서 메이지가쿠인대학(明治學院大學)의 춘원심포지엄에서의 결과로 나온 『이광수는 누구인가』(2014) 이후 한 학자에 의한 최초의 종합적 춘원 연구서라 하겠다. 이제 일본인도 과거 식민지의 한 한국 문인 내지 지식인의 존재가 지나간 먼 얘기가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임을 느끼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해낸 저자의 노고를 치하한다.

본서를 읽고 강하게 남는 인상은 저자가 춘원, 특히 춘원문학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김윤식의 『이광수와 그의 시대』(1986)에서 얻는 느낌과는 매우 다르다. 저자는 규장각 발표에서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는 표현을 썼는데, 평자도 사랑을 위한 진실과 증오를 위한 진실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약점과 허물을 캐기 시작하면 결국 양과껍질처럼 남는 것이 없는 존재다. 춘원을 알수록 애정이 더 깊어진다는 저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본서의 가치를 드높이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한 학문적 입장에서 일본학자로서 이런 견해와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 존경스럽다.

II

한국에서는 춘원 연구가 대학과 문학계를 중심으로 면면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친일파 낙인에 눌러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서도 일본 원서에서 “한국근대문학의 조(祖)와 친일의 낙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서점에 가면 그 많은 인물의 전기 가운데 춘원 전기는 한 권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어린이 위인문고 같은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도 춘원은 제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서는 춘원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평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나온 것으로 이정화의 『아버님 춘원』(1946, 이후 『그리운 아버지 춘원』, 1993), 박계주·곽학송의 『춘원 이광수』(1963), 김윤식의 『이광수와 그의 시대』(1986)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절판이다. 장편소설 형식의 문학적 전기로 방영주의 『돌고지 연가(춘원 이광수)』(2007)와 김원모의 역사학적 연구서가 있다.

하타노 세츠코(波田野節子) 교수의 본서는 저자 자신이 ‘평전’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 즉 평전과 전기의 관점에서 서평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평전이란 말은 전기, 정전(正傳)이란 말과 혼용도 되지 만 일반적으로 한 인물을 저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평석을 하면서 쓴 전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서는 문체나 연구자적 태도에서 평전이란 말을 써도 된다고 느껴진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한국에서 척박한 학문 풍토, 정치적 양극화 탓인지 여유 있게 차근차근 고증하여 한 인물의 일생을 글로 재구축하는 전기 내지 평전이 나오지 못하는 데 비해 일본에서 이런 결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이유다. 특히 저자는 사실 하나, 장소 하나, 인물 하나를 꼼꼼히 고증하려는 성실한 학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 결실이 본서의 참고문헌 중 ‘저자의 연구서와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다(아쉽게도 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은 빠져 있다). 평자도 춘원연구학회에서 “춘원전기,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발표하고 『춘원연구학보』(제5호, 2012, 95-164쪽)에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평전의 관점에서 볼 때 본서는 문고판이란 분량의 제한 때문인지, 문헌전공자의 관심에서인지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기나 평전이나 온전하기 위하여는 사실에 충실하고, 문체가 좋아야 하며, 인간의 심리를 잘 반영해야 된다고 평자는 평소 주장해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충족한 감이 크지 않다. 저자는 춘원의 생애에서 우연적 계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학문적 관점에서는 우연을 설명하려고 애써야 함에도 문학적 전기에서는 그런 지적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저자의 지적대로 춘원이 중국으로 가게 된 사실 등이 우연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한 생의 설명에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김윤식은 지나치게 춘원의 고아의식을 강조하지만). 이왕 그렇게 본다면, 더 우연적 계기로 지적해야 할 것들도 있다. 예컨대 1948년 춘원이 모운숙의 소개로 UN한국위원단장 메논(K.P.S. Menon) 박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메논은 춘원에게 인도에 와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교수직을 맡아달라고 초청했다. 춘원은 이 요청을 쾌히 수락했지만, 2년 후에 전쟁과 남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가 일찍이 일본에서 만난 타고르처럼 영어로 문필활동을 하여 노벨문학상도 타고 한국문

학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이 본서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이왕 우연의 계기랄까 의미를 얘기하니 지적하는 바다. 평자도 이런 점에 공감한다. 역사에서 가정(if)은 금물이라 하지만 한 인생을 서술함에 이런 우연적 계기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우연적 계기들이 많을수록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되는데, 사실 춘원만큼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뒤집어쓴 일생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이려면 춘원의 생애를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더 많은 우연의 계기를 찾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솔직히 본서의 묘미를 여기서 찾는 것 같은 기분이다.

III

문제의식이랄까 관점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좋은 전기와 평전을 만든다. 그런데 저자가 문학을 전공해서인지 본서 역시 김윤식처럼 작가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같이 보인다. 평자는 2014년 9월 18일 규장각에서 “춘원학의 새로운 지평: 이광수 연구의 새 자료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거기서 1. 문학, 2. 역사학, 3. 지리학, 4. 의학, 5. 심리학, 6. 정치학, 7. 철학, 8. 한국학, 9. 영향사로 나누어 춘원학을 정립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춘원을 문인이나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한국을 연구하여 국내외에 알린 한국학의 선구자로서의 측면을 보아야 춘원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토론의 여지가 있겠으나, 춘원 연구 내지 춘원 전기는 문제의식이랄까 안목의 다양성에서부터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책 제목도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는 춘원평전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런 제목으로는 결국 춘원을 친일 여부의 시각에서 논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국 독자를 위하여 바꾼 제목이겠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어로 쓰인 춘원평전으로는 너무 축소된 결과가 되었다고 할까. 춘원은 일본이 받아들인 서양을 어떻게 취사선택하여 소화했는지도 설명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춘원의 전체적 인간상, 풍부한 정신세계가 골고루 깊이 그려진 전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솔직히 한국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 물론 이런 전기 내지 평전

이 나오려면 많은 단편적인 연구들이 나와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되 훌륭한 필치로 종합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한 인물에 전기나 평전이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독일의 괴테, 미국의 링컨에 대하여는 지금도 수십 종의 전기가 나오고 있다.

학술적 전기가 되기 위하여는 참고문헌과 자료가 각주로 밝혀져야 하는데, 본서는 아마도 문고판이기 때문에 각주를 붙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그러자니 최근에야 밝혀진 연구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본서는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정리해나가는 방식이 특징인데, 그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기의 춘원, 대일협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적다 보니 나머지 부분, 특히 해방 후의 춘원에 대하여는 생략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반민특위의 진행 과정뿐 아니라 몇 개 인용된 춘원 시처럼 ‘인과(因果)’ 같은 중요한 시가 부분적으로라도 인용되었으면 춘원의 심경을 더욱 잘 반영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항상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이광수는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했다”(293쪽)고 단 몇 마디로 적고 있는 것도 아쉽다.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잘 알았던 인간관계도 할 말이 많고, 특히 김구의 『백범일지』를 현대문으로 고쳐 쓰는(일본어로는 書直)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291쪽), 실은 더 나아가 마지막 장은 아예 춘원이 직접 써붙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사실 이런 대목을 요약해 적기는 쉽지 않지만 지나친 단순화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서평이라 하여 쓰인 것 말고 왜 안 쓰인 것이 많으냐고 비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이다. 문고판으로서의 한계를 감수하면서 이만큼 밀도 있는 소개서를 쓴다는 것은 연구의 축적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다.

IV

전기서술은 흔히 말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가 필요한 전형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춘원 전기도 이런 관점과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 국제

적으로 나오기를 고대한다. 요즘은 뭐니뭐니해도 영어로 쓰인 전기가 나와야 세계적 인물로 소개되는 세상인데, 일본의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나 중국의 루쉰(魯迅)의 전기가 대학출판부에서 영어로 발간되는 것을 보면 춘원 전기도 그런 것이 나와야 한다. 솔직히 춘원도 친일이다 아니다 논쟁에 갇혀 있는 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전체다. 이제는 이런 것을 다 녹여 부어 동아시아문학, 나아가 세계문학으로서의 지평에서 보여줘야 한다. 요즘 한국문학도 번역이 잘 되니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화두로 되고 있다. 2015년에는 최초로 세계한글작가대회가 개최되어 이런 고무적인 토론을 하였는데, 괴테의 세계문학(Weltliteratur)은 자주 얘기하면서 춘원이 이미 1930년대에 바이칼 호수를 무대로 한 『유정』 같은 세계문학을 창출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춘원 자신이 『유정』을 외국어로 번역될 첫번째 작품이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영어, 러시아어로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 『유정』은 형식이나 내용에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비교되는 작품이다. 이런 무지를 계몽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전기가 나오는 것이다. 솔직히 춘원을 친일 여부와 민족문학으로만 논의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저자가 보았듯이 ‘우연’의 계기들에 의해 미국으로 갈 기회도 막히고, 유럽으로 갈 기회도 막히고, 인도로 갈 기회도 막히면서 한국민족사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춘원은 학생 시절부터 만년까지 세계적 지평을 염두에 두고 산 코스모폴리탄적 인간이었다고 본다. 좌절된 코스모폴리탄이라 해도 좋다. 그것이 한국현대사를 상징하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보는 춘원의 전기나 평전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크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마치 본서의 의미와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양해를 구한다. 솔직히 한국학자들에게 큰 자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한일 양국에 뜻있는 일을 한 저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